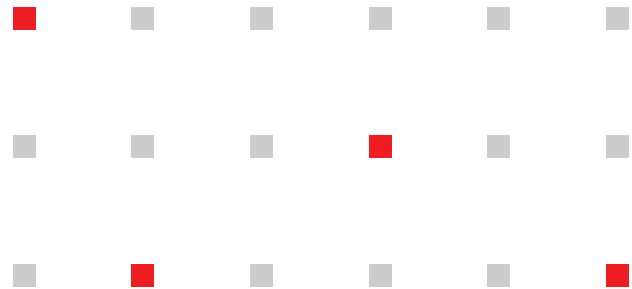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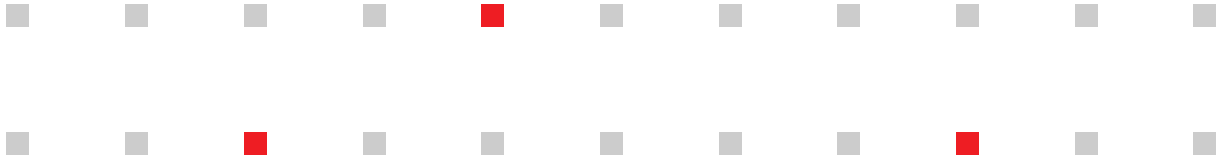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해야



연구진 이 동 기 연구위원 base@jd.re.kr
연구진 조 경 옥 연구위원 wook7231@jd.re.kr
연구진 이 성 재 부연구위원 cityarchi@jd.re.kr
연구진 조 무 현 연구원 world-cho@jd.re.kr

- 제1장 | 폭력피해 이주여성 무엇이 문제인가?
- 제2장 | 폭력피해 이주여성 무엇이 필요한가?
- 제3장 | 전라북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 운영 방안
- 제4장 | 기대효과

전북발전연구원



Contents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해야

제1장 폭력피해 이주여성 무엇이 문제인가?	3
1. 다문화 가정 폭력이 한국가정 폭력보다 높다	3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실 곳이 없다	4
3.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기반이 없다	5
제2장 폭력피해 이주여성 무엇이 필요한가?	6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6
2.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활자립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6
3.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관련 중앙정부의 동향 및 추진사례	7
제3장 전라북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 운영 방안	8
1. 자활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조직체계	8
2. 프로그램 운영	9
3. 자활지원센터의 시설계획	9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10
제4장 기대효과	11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ssue Briefing



제 1 장

폭력피해 이주여성 무엇이 문제인가?

1. 다문화 가정 폭력이 한국가정 폭력보다 높다

- ●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6,74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36.3% 증가율
- 도내 결혼이민자 증가 수는 1,796명(09년

도)으로 전국 증가율 15.7% 보다 가장 높
은 36.3%

- 도내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 1,65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1,354명, 조선족 905명 순임

〈표 1〉결혼이민자 증가 추이

구분	결혼이민자		결혼 이민자(증가)	증가률 (전년도대비)	2008년 결혼 이민자 분포	2009년 결혼 이민자 분포	2009년 결혼 이민여성 수	2009년 분포 비율
	2008년	2009년						
전국	144,385명	167,090명	22,705명	15.7	100.0	100.0	149,853	100.0
전북	4,947명	6,743명	1,796명	36.3	3.4	4.0	6,545	4.4

자료: 외국인 실태조사 자료(2009). 행정안전부

- ● 다문화 가정 부부간 폭력발생률이 한국인 가정보다 7.4% 높음
-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된 가정폭력발생률은 43.2%로 한국 가정폭력 발생률 50.4%보다 다소 낮음
- 그러나 부부간 폭력발생률을 보면 다문화 가정은 47.7%로 한국인 가정폭력 발생률

40.3%보다 높음

- 다문화 가정 폭력에서 신체적 폭력이 39.1%로 가장 높고, 정서적 폭력 35.6%, 경제적 폭력 12.2% 순
- 특히 중한 폭력의 경우 한국인 가정 폭력보다 3.5배 정도 높음

〈표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폭력발생률 비교

구분	가정폭력 발생률	부부간 폭력 발생률	부부간 폭력유형별 발생률 비교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	중한	경·중			
다문화가정	43.2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한국인가정	50.4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자료: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2007). 여성가족부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실 곳이 없다

- ●도내 이주여성 보호시설 2년 제한으로 퇴소한 이주여성 적응 시설 부재
- 도내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전북이주여성쉼터와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등 2개 곳이 설치운영되어 있음
 -전북이주여성쉼터(익산지역, 국비지원),
 아시아이주여성쉼터(전주, 지방비지원)

〈표 3〉 도내 이주여성 쉼터 현황

구분	아시아 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운영기관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종사자	4명(시설장 1, 상담원 3)	4명(시설장 1, 상담원 3)
소재지	익산시	전주시
규모	78평(방, 휴게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화장실 등)	43평(방, 휴게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화장실 등)
설치인가/개소	07.12.31/08.4.30	08.11.3/08.11.3
2010년 지원예산	123,089천원(국비 86,162, 도비 12,309, 시군 24,618)	123,089천원(도비 86,163, 시군비 36,926)

- 그러나 이주여성 쉼터는 보호기관으로서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년중 입소 수용 가능 정원을 초과하는 이용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조건 퇴소하여야 하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로 사회 부적응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양 시설의 총입소 정원은 30명, 연중 평균 보호인원은 21명 정도임
- 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은 연간 133명으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퇴소여성이 증가
- 연중 퇴소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106명이고 이 중 동반아동의 경우 26명임

〈표 4〉 도내 이주여성 연중 입·퇴소 인원

시설명	종사자 (시설장 포함)	입소 정원	전년말 보호 인원	년중 입소			년중 퇴소			현원			년중 평균보 호인원
				소 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 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 계	피해자	동반 아동	
아시아 이주여성쉼터	4	18	9	51	41	10	43	35	8	17	13	4	11
전북이주여성 쉼터	3	12	6(2)	67	49	18	63	45	18	10	8	2	10.19



3.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기반이 없다

-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활, 자립 능력 부재

-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들에게는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생계지원 등 일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자립 역량이 없는 상태로 퇴소하고 있음

〈표 5〉 이주여성 쉼터의 기능

구 분	내 용
입소대상 및 목적	가족폭력피해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일시 보호
거주지	비공개
주요기능	생계지원(식비, 교통비, 전화카드비 지원), 의료, 법률, 출국지원, 동반아동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 현재 도내 이주여성 취업이 낮은 상태로 퇴소 여성의 경우 더욱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태
- 현재 도내 결혼이주여성 중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은 33.3%에 불과하며, 미취업 사유는 자녀양육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현재 일하고 있는 있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 40.2%에 비해 전북은 33.3%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일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북 48.7%로 높게 나타남(전국평균 38.0%)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전수조사(전국 154,333명, 전북 6,523명), 조사기간: '09.7.20~9.20

〈표 6〉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여부

구분	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적 있다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계(명)
전국	40.2	21.8	38.0	100.0(129,117)
전북	33.3	18.0	48.7	100.0(5,333)

자료: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2009), 보건복지가족부 외.

〈표 7〉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미취업 사유

전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녀양육 때문에	한국말이서 틀려서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
전국	9.6	3.7	6.4	49.1	13.0	4.3	1.6	1.6	10.8	100.0
전북	10.2	3.6	6.8	46.8	16.5	5.6	1.8	1.1	7.7	100.0

자료: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2009), 보건복지가족부 외.

제 2 장

폭력피해 이주여성 무엇이 필요한가?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필요하다

- 도내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체계 필요
-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동반아동과 함께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후 자립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이주여성 관리 사각지대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약화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쉼터(2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기관들이 피해발생 및 보호치료단계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 및 취업, 자립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사각지대 상태에 있음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피해발생단계〉 〈보호·치료단계〉 〈자립단계〉
 1366센터, 상담소 ⇒ 쉼터(보호시설) ⇒ (사각지대)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임시거처 제공 및 주거서비스 지원 필요
- 도내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아동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임시거처 지원을 통해 양육과 주거문제 지원 필요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창업 지원 및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 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위한 취·창업능력 개발 지원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취·창업 연계 및 교육, 취·창업자 사후관리,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원
- 공동작업장 운영(동남아 음식 푸전식당, 떡 공장 등), 이주여성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
- 전업관련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지도,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 소양교육(언어, 사회적응, 정보화 등), 학교(농촌 특성화 학교, 대안학교 등) 입학 등 자녀지원

〈표 8〉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기능(안)

구 분	내 용
입소대상 및 목적	위험요소가 해소된 외국인 거주 및 자활지원
거주지	공개
주요기능	생계지원(식비, 교통비, 전화카드비 지원), 의료, 법률지원, 보육지원, 직업훈련지원, 공동작업실 운영, 취창업 연계지원, 주거기능

3.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관련 중앙정부의 동향 및 추진 사례

- 중앙정부의 동향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09년)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추진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 건립 추진
 - 기획재정부
 - 2011년 예산(서민희망, 미래대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및 폭력피해시 자활지원 강화 추진 예정
 - 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쉼터,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거주, 양육, 직업훈련 등 지원

및 지역기업취업을 위한 취업멘토링, 인턴지원(6월, 50만원)

*이주여성 쉼터 : ('10) 18개소 → ('11안) 19개소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 ('10) 2억원 → ('11안) 4억원

- 추진사례: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건립중)
 - 센터건립목적 : 서울시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을 통한 이주여성의 정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
 - 규모 및 시설 : 총 면적 990㎡(지하1층, 지상3층)로 생활실, 육아실, 도서실, 상담실, 어학실, 공동작업장 등으로 구성
 - 예산 및 운영 : 1,940백만원(국비 900, 지방비 1,040), 민간위탁방식
 - 프로그램 : 기술자격, 직업훈련, 취창업, 보육생활 등



제 3 장

전라북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 운영방안

1. 자활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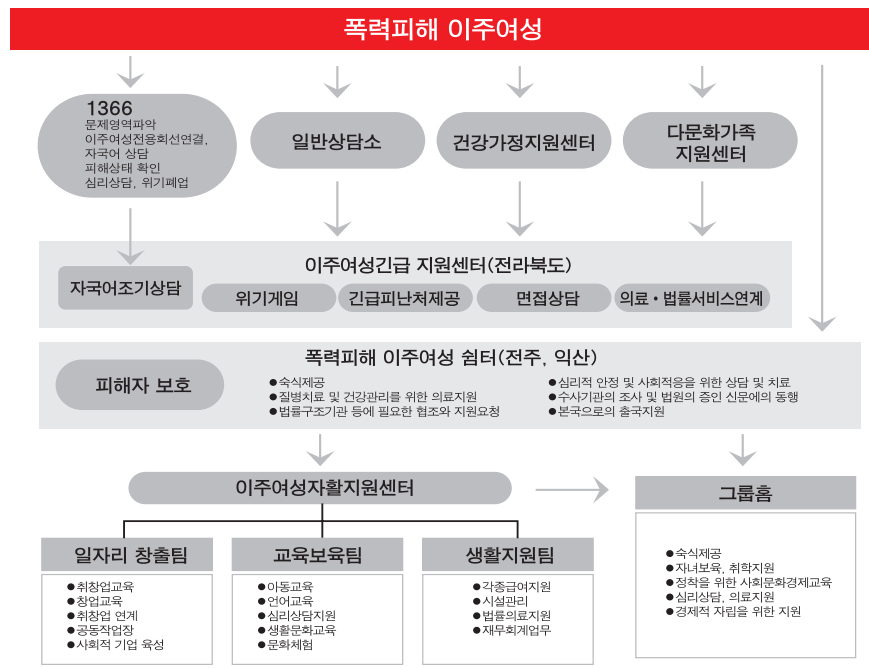
● 운영방향

- 취·창업 능력개발 및 전문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및 단계별 접근 추진
- 가족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생활거점으로서 운영

● 조직체계

•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역밀착형 센터로 운영

- 자활센터의 운영조직은 생활지원팀, 일자리창출지원팀, 교육보육팀으로 구성
- 자활센터의 지원조직은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단으로 구성



〈그림 1〉 자활지원 체계



2. 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 맞춤형 직업탐색프로그램을 제공 및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관련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취·창업연계 지원
- 보육지원 프로그램
 - 동반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보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직간접 피해 사례를 관찰하여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응 프로그램
 - 생활문화,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전문직종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 자립을 위한 전문직종 및 직업 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문직종 발굴 및 관련기관의 연계를 위한 체계적, 전문적 지원서비스 제공
 -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강사, 도우미, 관광가이드, 다문화음식점 등 육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경제적 활동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직업 취득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관리
 - 사례(서울) : 한폴미(한올교실플러스마미, 다문화강사 파견사업), 좋은세상베이커리

3. 자활지원센터의 시설계획

- 시설개요
 - 시설명 : 전북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규 모 : 대지면적 약 7,000㎡(건축면적 330㎡, 연면적 990㎡)
 - 용도별시설 : 상담실, 주거공간, 육아실, 도서실, 공동작업장 등
 - 총사업비 : 3,357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1,257)
- 소요공간 및 규모
 - 주요 기능을 고려한 소요공간은 크게 취·창업지원공간, 사회통합지원공간, 주거·편의지원공간, 사무공간으로 구분
 - 기존 이주여성쉼터, 전라북도 일자리센터 등의 기능과 중복성을 피하고 연계 검토
 - 공간규모는 운영관리에 소요될 인력 규모 및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산정

〈표 9〉 소요공간 및 공간규모 산정

구 분	소요공간	공간규모
취·창업지원공간	공동교육장, 공동작업장, 취업지원상담실	273.0㎡
사회통합지원공간	교육장, 다문화지원실, 자원봉사자대기실	161.7㎡
주거·편의지원공간	Transit Housing, 육아실, 작은도서관, 다목적회의실	357.0㎡
사무공간	센터장실, 행정·운영지원실, 회의실	102.4㎡
소계	주공간 894㎡, 부공간(로비, 복도, 화장실 등) 96㎡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 수행기관 : 전문기관(민간위탁)
 - 지원기관 : 전북여성일자리센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사업진행절차
 - 사업구성 및 운영체계 : 센터추진 지원단 구성을 통한 산학연 전략적 네트워크 추진
 - 인프라구축사업 : 추진주체와 전략적 협력 구축 추진
 - 프로그램개발사업: 추진주체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역할분담
 - 여성가족부는 자활지원센터 건립 및 사업

의 총괄적 주도

-전라북도는 센터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재원조달 방안

-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은 국비와 지방비를 7:3비율로 부담
- 사업비 및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 공동 부담
 - 취·창업교육프로그램, 전문직종 및 기술 교육프로그램, 공동작업장 운영 등의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
 - 운영비는 초기 3년(2011~2013)만 전라북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후는 해당 관리기관이 운영비용 부담(민간 위탁 운영)

〈표 10〉 항목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 목	국비	지방비	계
건축비	2,000	-	2,000
부지조성비	-	1,000	1,000
인건비	-	120	120
운영비	-	37	37
사업비	100	100	200
계	2,100	1,257	3,357



제 4 장 기대효과

- 국가 정책적 효과
 - 사회적 불균형을 예방과 사회적 약자 형성 자립 및 자활로 패러다임을 전환
 - 지역사회 정착을 추진하는 국가의 다문화 사회 정책 파급에 기여함
- 사회 공익적 효과
 - 임신 보호에서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들의 주거공간 및 경제적 자립 기회 확대
 - 개인의 역량 개발과 습득을 매개체로 하여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그림 2〉 사업추진 로드맵

JDI  Issue Briefing

